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칼빈 倫理思想의 韓國基督教
社會에의 適用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Calvin's
Ethical Thought to Korean Churches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朴 明 哲

1999年 12月 日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칼빈 倫理思想의 韓國基督教
社會에의 適用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Calvin's
Ethical Thought to Korean Churches

指導教授 尹 燦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2月 日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朴 明 哲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1999 年 12 月 日

主審 趙彙玟 

副審 權政浩 

副審 尹昌元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I. 서론 -----	1
II.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의 이론적 근거 -----	3
가. 칼빈의 생애 및 인문주의적 배경 -----	3
나. 칼빈의 인간이해와 경제. 문화관 -----	10
III.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 -----	21
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 중심의 윤리 -----	22
나. 전적부패, 선택, 신앙, 자유 -----	27
다. 자아부정 -----	31
IV.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의 한국기독교 사회에의 적용 -----	34
가. 한국사회의 현실과 윤리적 상황 -----	34
나. 한국기독교 사회의 현재와 윤리의식 -----	42
다.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의 한국기독교 사회에의 적용 -----	55
V. 결론 -----	61
참고문헌 -----	64
영문초록 -----	67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과 불신, 더욱 크게 벌어진 빈부 차이로 인한 갈등,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불안정과 붕괴,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불신, 그리고 잔인하고도 끔직한 범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고, 불로소득을 취한 자와 가진 자들의 사치와 낭비는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물량주의와 물질의 예속화, 교회정치 of 세속화, 기득권 수호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교파 분열, 교역자와 성도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와의 갈등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아감으로서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과 냉대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한국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각 부분에서 심각한 도덕성의 위기와 윤리의식의 결여, 그리고 사회기강의 붕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패와 죄를 회개(悔改)하고 바른 기독교 윤리의식을 회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바른 기독교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의 기독교 윤리사상을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한국기독교는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사상과 무분별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우선 순위,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비적 체험과 기복사상에 깊이 젖어 신앙적 양심과 도덕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한국 기독교 사회와 신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 중심의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을 통하여 도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기독교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료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바른 교회와 바른 신자가 되도록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을 통하여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의 이론적 근거

가. 칼빈의 생애 및 인문주의적 배경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북부 프랑스 피칼디주 노와이온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제랄코반(Gerald Cauvin)은 노와이온시의 유력한 인사로서 교회의 서기와 회계의 직분을 오래 동안 맡아본 사람이다. 배자의 기술에 의하면 그는 “판단력이 예리하고 지혜가 특출하였으므로 그 지방의 고급 귀족들(교직자들도 포함)에게 두터운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다.¹⁾

칼빈은 14세에 파리 대학 소속 마르쉬 문과대학에서 인문계 학생으로서 문과 계통을 배웠다. 대체로 당시의 유럽의 대학들은 문과대학을 거쳐야 신학부, 의학부 그리고 법학부로 진출케 하였다. 칼빈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칼빈은 문과대학에서 라틴어 문법과 라틴어 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어느 정도 배웠다. 특히 꼬르디엘(M.Cordier)은 칼빈에게 라틴어와 불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칼빈은 이미 불란서에 들어온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맛보기 시작했을 것이다.²⁾

칼빈은 다시 몬테그(Montaigne) 대학으로 옮겼다. 이 학교는 당시 인문주의의 거장인 에라스무스의 모교로서 그가 너무 검소하고 근엄하였다고 풍자할 만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리의 보수주의 진영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철학을 4년간 공부한 뒤 문학사의 학위를

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11쪽.

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8), 254쪽.

받았다.³⁾ 1527년 칼빈은 다시 오를레안(Orlean) 대학으로 옮겨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에라스무스, 로익힐린, 알레안텔 그밖의 당시에 저명한 인문주의 학자들이 번갈아 교편을 잡던 곳이고, 베자에 의하면 여기서 칼빈은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⁴⁾

칼빈은 다시 불쥬(Bourges) 대학에 와서 법학을 더 공부하고 헬라어를 배웠고 여기서 베자를 만났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칼빈은 인문주의자가 될 것을 목표로 하여 파리에서 다네(Danes)의 헬라어 강의에 출석하며 바타블(Vatable) 히브리어 강좌에 참석했다. 열심히 성서를 연구하면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 유명한 처녀작 “세네카의 관용론 주해”⁵⁾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1532년에 출간했다. 이것이 그의 최초의 저서로서 의미 깊은 저작이었다. 특히 이 저작은 그가 에라스무스와 뷔데의 모범을 따른 조예가 깊은 휴머니스트임을 드러냈다. 또한 이것은 라틴어로 썼기에 그의 우아한 라틴어의 구사 능력도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들은 그가 후에 종교개혁가로서 활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프로테스탄트 휴머니스트 활동가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있어서 확고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크. 르페브르. 데타블로가 이끌던 종교적 개혁자들의 집단에 속한 휴머니스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전향을 했다. 얼마후 프로테스탄트 집단에 대한 왕의 추방령이 있게 되자 그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 중심지인 바젤에 정착하게 되었다. 거기서 칼빈은 집중적인 신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무엇보다 성서

3) 전경연, 앞의 책, 13쪽.

4) 위의 책 14쪽.

5) 세네카의 「관용론 주해」에 관하여는 이형기의 앞의 책 260쪽 참조.

에 집중했다. 또한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루터나 마틴 부처와 같은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저작들도 연구했다. 특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칼빈의 지식 대부분은 두 권의 기본적인 중세기 교과서인 페트루스롬바르두스의 『Sentences』 (신학에 관한 책)와 그라티아누스의 『Decretum』 (교회 법에 관한 책)에서 얻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 연구의 주된 결과로 그의 걸작인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출판되었다.⁶⁾

그 출판의 목적은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 따르면, 첫째로, 프랑스에서 많은 신실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는데, 이들에 대한 거짓되고 날조된 비난을 드러내어 형제들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로, 그와 같은 잔악한 행위가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곧 행사될 것이기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소한의 동정과 배려가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⁷⁾

이것의 초판은 일종의 교리문답을 확장해 놓은 것으로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적인 교리들을 깨끗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된 것이라고 본 성례들을 비판한 첨가적 자료들도 있었으며, 그는 이 저작으로 인해 곧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권위 있는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후 그는 이 책을 여러 판에 걸쳐 개정하여 번역하고 많이 증보했으며 결정적인 라틴어 판은 1559년에, 프랑스어 판은 1560년에 출판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교의 신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편람이 되었으며 사실상

6)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1984), 1104-1108쪽들.

7) 위의 책, 1104쪽.

종교개혁 동안에 산출된 가장 영향력 있는 단 권의 편람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중요한 새 형태의 관념적 근거가 되었다.⁸⁾

1536년 가을에 성서 강해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칼빈은 그곳에서 제네바 사람들을 종교개혁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Instruction in Faith』 (1537)을 저작했다.

그후 칼빈은 스트라부르로 가서 프랑스어로 프로테스탄트 의식문을 작성했으며 교구를 관장할 일련의 새 제도들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성서적 저작(Commentary on Romans, 1539)과 신학적 저작들을 출판했으며, 1540년에는 이벨레트 드 뷔르와 결혼했다.⁹⁾

한편 제네바는 스트라부스에 있는 칼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개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법규를 작성했다. 이 법규(이 법규는 제네바에 목회의 네 직분. 즉, 1)가르치는 박사들, 2) 설교하는 목사들, 3) 징계하는 장로들, 4)자선하는 관리를 맡은 집사들 등을 세웠다.)는 다소 수정이 되긴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제네바 교회의 헌법의 역할을 해 왔다.¹⁰⁾

또한 칼빈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회(The Comany of Pastors)의 사회자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목사회는 목사 후보생들을 선발하는 일 외에 칼빈의 지도 아래 교구의 과제들을 할당하며 정규적인 업무들을 확정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사회자로서 종종 이 목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시 정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러했다. 칼빈은 장로들의 활동에 몸소 참여하기도 하였다. 목사와 장로들이 일주

8) 위의 책, 1105쪽.

9) 위의 책, 같은 쪽.

10) 위의 책, 1106쪽.

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콘시스토리움(Consistorium)이라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추기경 회의를 가리키고, 특별한 지역의 장로교나 루터교에서는 교회 내의 제 문제를 결정하는 오늘날의 치리회의 역할을 한 기관임) 이 콘시스토리움은 우상 숭배나 이단 카톨릭의 종교 의식을 행한 경우, 그리고 칼빈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할 경우로부터 중대한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수백 가지 사례들을 다루는 일종의 법정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퓨리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어 도덕적 엄격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¹¹⁾

1541~55년에는 교회의 조직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그의 교리적 권위에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그 중에 제롬 볼세크와 밀카엘 세르베투스의 도전은 만만치 않았다. 즉 볼세크는 전에 카톨릭 신학자였던 사람으로, 1551년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칼빈은 다른 도시의 신학자들에게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그 비난을 논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볼세크는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¹²⁾

또한 세르베투스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책들을 출판하였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의 신학적 대적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1555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에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주의를 보급시키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1555~64년에 프로테스탄트를 보급시키려고 했던 칼빈의 관심은 주

11) 위의 책, 1107쪽.

12) 위의 책, 같은 쪽.

로 그의 고국인 프랑스로 향했다. 칼빈은 급속히 성장하는 개혁 교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 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제네바는 개혁과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중요한 국제적 본부가 되었다.¹³⁾

1560년대에 칼빈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하여 1564년 초 그가 죽기까지 그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저술 활동을 하다가 그 해 5월 27일 『여호수아 주석』을 집필하는 가운데, 55세를 일기로 안식에 들어갔다.¹⁴⁾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배경을 생각하게 된다.

과연 칼빈은 어떤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았는가?

칼빈은 자신이 회심(悔心)하기 전까지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에게서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여기서 칼빈의 인문주의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인문주의 토대 위에 신학 사상을 수립했기 때문이다.¹⁵⁾ 무엇보다도 칼빈은 인문주의자들과 교제하면서 첫째로, 계시된 인간의 지식과 자연적인 자기 지식을 혼동 없이 종합하는 것을 배웠다.¹⁶⁾

칼빈에게 있어서 복고주의라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문주의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차

13) 위의 책, 같은 쪽.

14) 위의 책, 1108쪽.

15) 이형기, 앞의 책, 257쪽에서 칼빈은 오를레앙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올리비탄의 도움으로 불란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서클에 소개되었고, 성경을 불어로 소개했던 인문주의자 올리비탄으로부터 기독교의 참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16) Andre. Bieler, 홍치모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성광문화사, 1992), 18쪽.

원을 첨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순수하게 인간 중심적인 지식에서 떠나 중심에 하나님의 신비가 자리잡고 있는 완전한 인간 지식으로 옮겨가는 종합을 학문에 적용하였던 것이다.¹⁷⁾

둘째로, 칼빈이 인문주의에서 배운 것은, 인문주의는 칼빈에게 성서로 되돌아감으로서 기독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¹⁸⁾ 그래서 그의 성경 연구 속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고전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자주 나타남을 볼 수 있다.¹⁹⁾ 그리고 칼빈은 인문주의적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들을 자신의 학문에 적용하였다.²⁰⁾

그러나 칼빈의 휴머니즘은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제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휴머니스트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육받은 과정에서 신학을 토대로 하여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문주의가 아니라 신학적 사회적 인문주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17) 위의 책, 22쪽.

18) William J. Bouwsma, 이양윤, 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도서출판 나단, 1991), 265쪽.

19) 위의 책, 266쪽.

20) 위의 책, 272쪽

21) Andre. Bieler, 앞의 책, 13쪽.

나. 칼빈의 인간이해와 경제, 문화관

가) 인간이해

칼빈은 인간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후의 모습에 대한 지식이다. 이를 그는 기독교강요 1권 15장과 2권 1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먼저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자. 칼빈이 말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그는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대로'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놓음으로써 그 형상에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다는 것과 같다"²²⁾고 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함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²³⁾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하여 구별하며, 선택하여 영생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2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흙·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제1권 15장 3절.(이후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Inst 로, 제1권 15장 3절은 I. 15. 3으로 표기함)

23) Inst., I. 15. 3.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가려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이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²⁴⁾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은 좋은 주위환경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보다 더 좋은 영생의 삶을 목상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⁵⁾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완전체로 창조되었던 것이다.²⁶⁾

다음으로 타락한 후의 모습을 살펴보자. 칼빈이 말하는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이전의 선하고 순수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으며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²⁷⁾

윌레스도 아담의 타락으로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던 혼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⁸⁾

24) Inst., I. 15. 8.

25) 도널드 S. 윌레스, 나용화역,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기독교 문서관교회, 1988), 137쪽.

26) 아더 핑크, 서문강역, 『인간의 전적타락』 (서울:청교도 신앙사, 1989), 30쪽.

27) Inst., II. 1. 8.

타락의 원인은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 사탄은 본래 천사로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²⁹⁾ 그러나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여 된 것이다.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였다. 그리고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지켜 순종했다면 타락 이전의 본래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부정한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이다. 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다.³⁰⁾ 사도 바울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³¹⁾하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해석하면서 아예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죄의 감염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다.

불순종은 우리를 완전히 정욕으로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버린 사람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뛰어들었다”³²⁾고 했다. 윌레스도 “사람 안에 있는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으로부터 육체까지 모든 것이 이 정욕으로 더럽혀지고 침투되어 있다”³³⁾고 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은 감성이든 기

28) 도널드 S. 윌레스, 앞의 책, 138쪽.

29) E. M. 바운즈, 말씀사역, 『사탄의 정체』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8), 18쪽.

30) 그레샴 메이천, 채경희역, 『기독교 인간관』 (서울:도서출판 나침반사, 1988), 257쪽.

31) J. Calvin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존 칼빈 성경주석』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2), 로마서 5장 12절. (이후로는 Comm. 로마서 5:12로 표기함)

32) Inst., II. 1. 4.

33) 도널드 S. 윌레스, 앞의 책, 78쪽.

능이든 형평을 잃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적극적 욕욕의 원리에 사로잡혔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 죄가 솟구쳐 오르는 무절제한 사람이 되고만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된 것이다. 칼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나는 말한다. 저급한 욕망이 그를 유혹했으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 바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저의 밑바닥에까지 침투한 것이다.”³⁴⁾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자연적인 천품인 이성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욕이 지배하여 이 세상만 사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 칼빈의 경제관

칼빈이 살던 제네바는 商業都市였다. 의류, 피혁류, 보석, 시계, 서적 등이 생산되었고 상업이 성행하고 은행가들이 있었다. 돈은 利子를 가산해서 빌리고 또 빌려주곤 했다. 이 모든 것이 민중들의 생활 수단이었으나, 한편 高利貸金과 착취의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교회는 칼빈과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후 시민들의 생활과 공용을 증대시키고 가난을 방지하며, 물가가 고정되

34) Inst., II. 1. 9.

고, 임금과 노동시간이 고정되는 등 일반적인 번영을 가져 왔지만, 수반되는 악도 가져왔다. 칼빈은 정의와 사랑을 지도원리로 하여 공중의 복지와 질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코자 노력하였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칼빈의 경제 윤리관을 이해하여야 한다.

칼빈은 聖經에서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찾게 된다. 칼빈에 의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고리대금과 이에 따르는 모든 악용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자받는 것을 정죄하고 이자를 5%로 제한했다.

한편 성경은 이웃을 돕는 견지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자비로운 貸與는 신앙의 확실한 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하는 견지에서 빌려주었을 때 이자받는 것을 성경은 엄히 정죄한다. 칼빈은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은 이자 없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적은 임금과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보수에 대한 잦은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칼빈은 봉급계약을 제시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봉급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확고한 표시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으로 중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공상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봉급은 고용주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봉급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35)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편찬위, “신학정론”, (서울:도서출판 바라, 1990), 161쪽.

우리는 봉급의 의의를 이해하는데 칼빈의 공헌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한 봉급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가정적인 自然法에서 출발하여 어떤 규범을 세우려고 했지만, 칼빈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적인 소명(昭明)에서 보고, 봉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수(報酬)로 고려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봉급은 객관적으로만 또는 양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봉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동자의 새로운 품위를 생각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노동과 노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활을 위해 마련하신 일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노동이 의미를 갖게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르게 성취되어 피조물의 생활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에서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 수행하는 하나님의 섭리(攝理)에 자신을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노동과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연결시켰다. 그는 福音이 노동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인간의 노동에 靈的인 권위를 부여하므로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³⁶⁾

칼빈에 의하면 商業은 노동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交換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조화된 사회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물질을 교환하는 것은 사회구성 요원들의 영적인 교제의 표가 된다. 그러므로 상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36) Andre Bieler, 앞의 책, 47쪽.

것을 얻는 것이다. 상업은 마땅히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며, 인간의 존재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기 위해 상업은 항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神的 목적에서 이탈될 때 상업은 급속도로 그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다. 기만과 부정직은 경제관계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개인과 단체를 분리시키며, 교환이나 생활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는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정심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산과 이익과 노동은 公益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는 확신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결속된다면, 그들은 서로 그들의 이익을 분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⁷⁾

칼빈의 경제윤리사상을 간단히 요약할 하면,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되 탐심을 갖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가난하면 인내로 참아야 하며, 한편 富하다고 해서 사랑과 신뢰를 그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들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보다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직하게 일해서 그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익을 우리는 정당한 보수로 받아야 한다. 팔고 사는데 있어서도 기만과 술책과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37) Inst., IV. 1. 3.

을 대하여야 한다. 많이 가진 자는 탐심과 무절제,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 그리고 교만이나 허영으로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웃을 위해서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³⁸⁾

다) 칼빈의 문화관

칼빈에게 있어서 문화적 사고는 창조론에 입각해 있다. 칼빈은 창세기의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문화적 사명을 주장하여 일반창조와 이방세계에 있는 문화도 이방인의 죄악성에 항거해서 하나님이 육성한 열매로 간주하며 이 일반은총에 의해 맺힌 열매를 감사히 사용할 의무를 강조한다.³⁹⁾

이 창조론에 입각한 칼빈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⁴⁰⁾에 따른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질서에 입각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성한 친교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며 이웃과의 관계는 창조 세계의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공통 본성으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 이웃에 대한 자연적 질서에 의해 인간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니고 또한 여기서 소명의식이 나온다. 이웃을 위한 소명의식에서 노동의식과 문화의식이 나온다.

칼빈은 바울과 어거스틴을 따라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

38) 합동신학교 신학경론 편찬위, 앞의 책, 164쪽.

39) Comm, 창세기 1:28.

40) Inst., I. 5. 3.

면서도 근본주의적 반문화사상을 말하지 않고, 적극적 문화사상을 주장한다.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문화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나 칼빈이 반문화주의에 이르지 않는 것은 그의 일반 은총론이다. 일반은총에 근거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문화가 가능한 것을 인정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방인에게도 문화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두루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죄의 파괴적 세력을 막고, 정부와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문화적 선을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방 문화에 있어서 두 가지 실태를 칼빈은 지적한다.⁴¹⁾ 첫째, 이방 문화는 진정한 문화의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쇠퇴했다. 둘째, 이방문화는 그 자체 안에 부패한 씨를 내포하고 있다. 이방문화가 그 황금기의 꽃을 피웠을 때에도 항상 그 속에 죄악의 내부적 부패를 포함하였던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은총에 문화의 실패와 몰락은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필요로 한다고 한다.

칼빈은 문화가 기독교를 떠나서 존재치 않는다는 문화기독교적 주장을 하지 않고 문화에 대한 변혁 사상을 말한다.

즉, 문화가 그 적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규정을 지었다. 이 지고한 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41) 채규양,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정착방안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13쪽.

야 한다.

칼빈의 문화적 변혁주의에 가장 기반이 되는 사상은 창조론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주시다. 이 창조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왜곡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세계의 구속과 그 문화를 변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정과 국가, 사회 및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을 두려고 했다. 따라서 칼빈에게는 이 창조의 세계와 문화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광장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주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구속 주요 문화의 변혁자로 나타난다.⁴²⁾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과 사회 개혁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이상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손을 잡고 성경적 세계관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었다. 칼빈은 1541년 『교회에 관한 칙령』을 통해 각 직분이 해야 할 일을 규정했다. 특히 집사직(deacons)은 일반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즉 돈을 다루고, 병자, 노인, 과부, 고아, 호구지책이 없었던 사람들과 여행자들의 항구였던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편제되었다. 구빈원을 위해서 일했던 의사도 시 경비로 급료를 받았다. 이 제도는 칼빈의 사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확대되기까지 했다. 구빈원의 원장도 집사였

42) 정성구, "칼빈의 문화", 신학지남(1978. 7), 19쪽.

다. 한편, 장로들 가운데 평신도들을 뽑아, 도시 세 구역의 윤리 도덕 문제를 관할하는 경찰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칼빈은 소비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558년에는 사치 금지법 (Sumptuary Laws)을 제정하여, 빈곤 퇴치에 힘썼으며, 빈부의 격차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사람의 눈에 띄는 소비”종류를 막고자 했다. 의복과 음식(연회가 세 코스 이상 또한 매 코스마다 네 접시 이상 되지 않도록)에 대한 절제 및 카드와 주사위 놀이 금지(일반 게임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노름이 금지된 것임) 등이 포함돼 있다. 많은 법령들이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행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말들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사치 금지법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1564년 6월 8일 새로운 포고령이 통과됐다.

또한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온 뒤인 1543년, 그는 고리대금업에 대해 맨 먼저 손을 댔다. 결국 그해 12월 24일 소의회가 현품-밀이나 포도주에서 받는 이자는 5%로 감해져야 한다고 명령했다. 입법조치는 1544년에 이루어졌다. 이와 관계된 법이 1547년, 1557년에도 공포됐다.

이 외에도 노동 일수에 대한 법령(1537년 6월 4일), 임금에 대한 포고령(1559년 3월) 인채 산업의 조정, 노동 시간 조절에 관여하였다.

칼빈은 1545년 말에 결혼 법을 제정하여 예절과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남녀간의 기본적 평등 관계를 제시하므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 제도의 문제에도 관심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⁴³⁾

43) W. Fred Graham, 김영배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141-265쪽들 참조.

Ⅲ.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

칼빈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그는 윤리의 원리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냈지만 철학적 의미의 윤리체계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윤리와 종교를 깊이 관련시켜 다루고 둘을 구분 짓지 아니하였다.

칼빈은 철학자들의 윤리적 이론을 다음과 같이 공박하였다. “철학자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본성(本性)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다.”⁴⁴⁾ 칼빈은 도덕적인 이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윤리가 있으며, 그 윤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칼빈은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과 제네바 시민에게 부과했던 도덕적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에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칼빈의 윤리는 힘이 있고, 뛰어나며, 추진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금도 불명료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도덕적 확신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에는 조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다. 비록 수고와 고통이 있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義)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44) Inst., III. 6. 4.

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윤리

칼빈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성경은 칼빈의 윤리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윤리의 근원이 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흠이 없는 완전한(無誤)한 말씀이며, 그 기원을 하늘에 두고 신적 권위(神的 權威)로 주어진 책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聖靈)이 확실하며 진정한 필기자(筆記者)”로 보았기 때문이었다.⁴⁵⁾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이다.⁴⁶⁾ 오히려 교회는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의 진리를 명백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外部的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⁴⁷⁾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앞서지 못하며,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나 성직자, 혹은 어떤 인간적인 기구에 의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라고 그는 주장하였다.⁴⁹⁾

45) Inst., IV. 8. 9.

46) Inst., I. 7. 1.

47) Inst., I. 7. 2.

48) Inst., I. 7. 4.

49) Inst., IV. 1. 9.

칼빈은 제네바교회가 말씀과 성례에 있어서 참되고 순수한 교회라고 생각했고, 반면 로마교회는 두 면에서 순결하지 못한 교회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⁵⁰⁾가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하여 개인의 직관(直觀)이나 내적소명(內的召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의존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계시(啓示)의 진실성을 증거 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인간의 지력(知力)과 이성(理性)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능가하지 못하며, 마땅히 그 앞에 무조건 굽혀야 한다.⁵¹⁾

성경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案內者이며 모든 생활의 규범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내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게끔 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⁵²⁾

칼빈의 윤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서 나온 윤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동기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실천력이 강하다. 칼빈의 윤리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자력(自力)으로는 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無罪完全한 생활을 최고 도덕적 모범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律法 순종의 동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성령의 신적(神的)인 도움으로 순종의 가능성을 가르친다.

또한 칼빈의 윤리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매우 중요한

50) Inst., IV. 1. 1.

51) Inst., I. 8. 1.

52) Inst., I. 6. 1.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

만사는 그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를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상을 받으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을 주시며 공의로 벌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인격적 기계론이나 독단적인 운명론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인간과 사물의 세계는 전적으로 의(義)로우시고 전능(全能)하시며 지혜(知慧)로우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意志)는 전적으로 무조건적(無條件的)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동이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는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불경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기로 뜻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 교리를 아주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義의 최고의 규범은 하나님의 意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모두 그가 뜻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義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한다. 또한,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뜻하셨는가를 계속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큰 것, 즉 하나님의 뜻보다 더 숭고한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⁵³⁾ 칼빈은 삼위일체 신관에 따라 인간의 윤리

생활(倫理生活)을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에 적용하였다. 그는 일관성 있게 인간의 윤리생활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창조주로서의 위엄, 지혜, 선하심, 전능하심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 즉 절대주권과 우주적 명령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여 全被造物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萬事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현실화하신다.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공로와 관련하여 하나님만이 永生과 永罰을 예정하실 수 있다. 그는 公義와 사랑에 따라 만사를 지배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의 속성(屬性)을 말할 때에나 하나님의 행위를 말할 때에도 인간의 윤리생활과 관련 없이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⁵⁴⁾

칼빈의 주권사상(主權思想)은 절대적이며 전포괄적(全抱括的)이어서 全創造와 인간 생활전체, 즉 예배와 종교 모두에 적용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우주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덕법(道德法)은 인간에게 절대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를 반대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도덕법은 특별히 십계명(十誡命)과 그리스도 대강령(大綱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도덕적 선의 유일한 표준이며, 칼빈의 종교적 의미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한 규범이다. 도덕법의 이행으로서의 도

53) Inst., III. 23. 2.

54) Inst., I. 5. 8.

덕적 선은 그 근거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둔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법 보다 절대적으로 높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만드신 규범에 따라 판단하실 수는 없다. 그는 인간의 도덕성의 범주에 예속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공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인 것이다. 도덕적 선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慈悲),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贖罪的)공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의 역사에서 오는 하나님의 일이다.

칼빈의 윤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겠다.

칼빈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인간의 윤리생활을 보았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意志와 律法을 두려워하고 순종케 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복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억제케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는가 하는데 대한 답인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기로 마음을 가진다. 즉 그는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만사가 협력하여 유익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에게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별력과 신중성의 은사를 허락하신다.

칼빈의 하나님의 主權思想은 우리에게 확실성과 신뢰성, 신앙의 견고한 기초, 불안과 두려움에서의 해방, 그리고 적극적인 종교적 자유를 주었다.⁵⁵⁾

나. 전적부패, 선택, 신앙, 자유

현대철학 사상과 종교사상의 흐름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칼빈의 原罪論과 충돌하게 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本性은 全적으로 부패하여 善을 향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으며, 聖靈으로 重生하지 않고서는 德行은 전혀 불가능하다.⁵⁶⁾

그는 사람에게서 아직 自然的 善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哲學的 사색에는 거의 동정하지 않았으며, 堅유철학(Cynicism)이나 스토아 主義를 모두 강하게 혐오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연적인 德이나 자연적인 善이라도 “전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⁵⁷⁾

따라서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있는 인간본성의 유전적 부패이며 타락이라고 칼빈은 규정지었다.⁵⁸⁾

이렇게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救援)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意志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예정(豫定)에 따라 타락한 인류중에서 얼마를 선택(選擇)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멸망에

55)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편찬위, 앞의 책, 156쪽.

56) Comm. 로마서 6:6, 에베소서 2:1-2.

57) Comm 에베소서 2:3-4, 갈라디아서 1:8-9.

58) Inst., II. 1. 8., Comm. 에베소서 2:3.

이르게 하셨다.⁵⁹⁾

이러한 은혜의 선택 없이는 중생도 회심도 영적 생활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中保)로 하여 죄인 안에 새 생명(生命)을 심어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意志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된다. 만일 선택이 인간 자신의 아무런 功勞없이 되었으니, 그것은 非倫理的이며, 被擇者에게 큰 죄와 부도덕의 길을 열어놓을 뿐, 훈련이나 교훈 같은 것은 아무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러한 추리는 참람한 행동이라고 반박하였다. 왜냐하면 생명을 선택 받은 사람은 또한 善을 행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이며, 복음증거, 교훈, 훈련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⁶⁰⁾ 이 교리는 칼빈主義의 특수한 면이라고 흔히들 말하나, 반드시 칼빈에게만 특수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칼빈과 꼭 같은 정도로 강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루터(Luther)도 이를 확고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전적 부패(全的腐敗) 교리와 함께 선택 교리를 어거스틴(Augustine)에게서 받은 것이다. 善行의 근거, 즉 자신의 윤리적, 영적 생활의 근거는 信仰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의 근거가 선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조사해 보면 신앙은 선행의 진정한 근거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며 充용(充用)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

59) Inst., III. 21. 5.

60) Inst., III. 23. 12.

로 우리의 구원을 수행하도록 역사 하시는 것이다. 교회, 예배, 말씀 선포, 성례는 신앙의 이 충용을 촉진시키며, 현실화시키는 수단이 되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은 은혜를 수반하는 수단이라고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신앙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앙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며, 죄인을 罪와 不義에서 놓아주는 동시, 인간에게 자유의 意識을 받게 한다. 그러나 칼빈의 자유 개념은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이다. 그것은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이며, 죄인에게 부과되었던 저주로부터의 자유이다. 무거운 죄의 짐은 사라지고, 하나님 의 자녀라는 의식과 평화와 사랑의 의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罪人이 하나님에게 용납되어 義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행위도 역시,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되고, 점점 더 풍성하게 성화(聖化)의 길을 달리게 된다.

한편 칼빈은 弱한 형제의 신앙과 良心을 손상시킬 때에는 어느 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⁶¹⁾ 그리고 그는 로마敎會의 편협한 자유관과 방임파(放任波.Libertines)는 자유남용에 대항해서 맹렬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전체 논법은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自由'(Die Freiheit des Christenmenchen)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점에서 두 종교개혁의 차이는 기질과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우리는 선행의 근거를 신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善行)이 선행(先行)되는 것은, 그것이 오직 道德法의 표준과 일치해야

61) Inst., III. 23. 12.

하며, 특별히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律法의 요구를 정확하게 완수할 것을 강조하되, 儀式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영적 본질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모든 法의 요구를 완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물론 이 원리대로 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기 쉬운데, 첫째는 율법을 다소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므로 불필요한 엄격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적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폐단에 떨어지기 쉽다. 이것은 청교도(淸敎徒)들에게 언제나 볼 수 있었던 가정생활과 사회관계에 대한 세칙(細則)에서, 또는 성수주일(聖守主日)의 형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적은 것을 너무 강조하므로 僞善에 빠지기 쉬운 일이다. 위선이란 내부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외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뜻한다.

道德法이 십계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규정짓는 표준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생활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義務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의무, 사회적 의무,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 모든 것이 이들 각종 이익의 성격과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성결(聖潔)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율법은 完全한 생활에 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 자아부정

칼빈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뜻으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분야가 유일하며 정당한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자”⁶²⁾ 칼빈은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전체 능력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데 해야 할 첫 단계는 자신을 떠나는 일이다……그리스도敎 哲學은 이성이 그 자체를 聖靈에게 양보하며 복종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며 다스리는 것이다”⁶³⁾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그의 영광의 증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관심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계명(誠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충성을 다해

62) Inst., III. 7. 1.

63) Inst., III. 7. 1.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聖經은 인간의 관심사에서 떠나라고 교훈 하면서, 소유욕과 권세욕,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호의를 마음에서 지워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을 위한 갈망과 야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生涯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부인(否認)하며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며, 따라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치료약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律法의 두 돌 판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이성과 의지가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셋으로 제한하였다. 즉 근신과 의와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었다”⁶⁴⁾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데 있다.

그는 이 사실을 이런 말로 요약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는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팔리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⁶⁵⁾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역시 敎會 혹은 하나님의 百姓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근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계

64) Comm. 디도서 2:11-14.

65)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편찬위, 앞의 책, 161쪽.

시하시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⁶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성에 따른다”는 스토익주의 생활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和睦)의 결과이며, “自我否定”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행동을 자아부정으로 이해하였다.⁶⁷⁾

66) Inst., III. 6. 3.

67) Inst., III. 7. 2.

IV.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의 한국기독교 사회에의 적용

가. 한국사회의 현실과 윤리적 상황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윤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8.15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상황

조선왕조는 신분사회로서 가족주의적 유교 윤리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깊이 침투해 있으므로, 사회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내부로부터의 힘도 강한 편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적 신분사회는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사회 규범을 지키게 하는 타율의 힘으로서 작용하였고, 유교적 도덕 관념도 아직은 살아 있어서 자율의 힘으로서의 구실을 어느 정도 계속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8.15 해방을 계기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일제가 물러가면서 공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미국 문화의 물결을 타고서 설익은 개인주의가 들이닥치며 가족주의에 입각한 유교 윤리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유’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거니와, 그 당시의 ‘자유’는 방종과 거의 같은 뜻이었다. 일제의 탄압에 눌러 살았고 가족주의적 유교 윤리의 권위에 눌러지내던 사람들이 즐지에 ‘자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

며, 그 '자유'를 방종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윤리적 무정부 상태가 일어난 것이니,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온 것은 당연한 귀추였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해방 직후에 상당한 세력을 얻은 좌익 사상의 부추김이었다. 마르크스 사상에 따르면 법과 윤리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마땅히 파괴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특히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 나라의 전통 윤리는 구시대의 지배 계급을 옹호하기 위한 '낡은 도덕'이라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좌경 인사들은 입을 모아 매도하였다. 전통 윤리에 대한 이러한 평가절하는 윤리적 무정부 상태에 빠졌던 일반적 상황 속에서 좌익 노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6.25 동란을 겪게 되었고, 전쟁은 질서와 윤리 의식을 더욱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공무원 사회와 장병들의 부패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일부 특권층은 사치와 환락으로 세월을 보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민생고에 시달리는 형편이었으니, 질서를 향한 움직임은 그들로부터 기대하기도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정부가 도리어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자유당 정권은 헌법도 마음대로 고치고, 부정 선거도 거침없이 자행하였으며,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무고한 죄명을 붙여서 처벌하였다. 심지어 자기네의 정권을 연장할 목적을 위해서 폭력배 조직을 동원하는 비행까지 감행하였다. 그들의 비리는 1960년 3.15 부정

선거에서 절정에 달했고,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한 이 부정 선거는 4.19 학생 의거의 도화선이 되었다.

4.19 항쟁은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정치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부정을 규탄하는 윤리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윤리적 무정부 상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 상황임을 국민의 일부가 자각하기 시작하였고, 우선 정부의 도덕성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4.19 운동 배후에 깔려 있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며, 각자가 자신의 부도덕을 반성하기보다는 서로 남의 부도덕을 비난하는 시각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4.19에서 새로운 정권에 이르는 시기에는 학생을 위시한 국민층에서 정부의 비리와 비행을 성토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5.16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정부가 국민의 비행과 악덕을 규탄하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기세가 등등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각급 학교에서의 국민 윤리 교육의 강화, 새마을 운동 등은 모두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일련의 움직임이었다.

군부에 기반을 둔 5.16 정권은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막강한 통치력은 국민의 방종을 억제하는 타율의 힘으로서 작용했던 까닭에 제3, 4공화국 18년 동안 국민 대중의 치안만은 비교적 잘 유지된 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직을 위시한 특권층의 비리와 횡포는 도리어 대형화했으며, 타율적 준법에 의존하여 겨우 유지된 약자층의 치안과 질서는 공권력만 약화되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의 정신 풍토는 제3공화국의 그것보다도 오히려 못한 편이었다. 정권의 정통성이 제3공화국의 경우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었

고, 청와대 주변을 위시한 특권층의 비리와 부정도 과거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정부가 장악한 경찰력이 막강한 규모의 것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병력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일에 투입했으므로, 민생 치안은 자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 나라의 윤리적 취약성은 6공화국에 이르러 더욱 현저하게 노출되었다. 6.29 민주화 선언을 앞세운 정부는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시키기보다는 민주적 시민 의식에 호소하는 길을 택해야 할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국회에서의 세력 분포가 한때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열세에 몰렸다는 약점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공화국은 부드러운 정부로 출발을 하였는데, 이 부드러운 정치의 틈을 타서 인신 매매, 어린이 유괴, 어린이 추행, 살인 강도 등 흉악한 범죄와 지능적인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도처에서 발생하는 형국을 이루었다.⁶⁸⁾

나) 오늘의 한국 사회 현실과 윤리적 한계상황

한국사회의 현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성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첫째, 산업화 현상이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특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 현대 산업사회는 과학기술에 의존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과학에 의존할 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이다. 과학이 지배하는 현대 산업사회는 그 사회를 만들어 낸 인간

68) 김태길, 『직업윤리와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7), 292-297쪽들 참조.

이 과학에 의하여 즉 기술문명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으로 비인간화의 문제를 야기시켰다.⁶⁹⁾

(나) 산업사회 속의 인간은 전적으로 경제 의존적 구조 속에 살아야 하는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의존적 구조 속에서 노동적 생산 활동과 경제적 부의 획득을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이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적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수단을 위해 인간의 생산적 노동을 통하여 창출시킨 그 경제력은 역시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본래의 인간성을 상실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수단인 경제는 인간을 좌우하는 힘으로 등장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은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부정부패의 요인이 이것이다. 황금만능적 사고방식과 한탕주의 사고, 결국 경제 정의가 상실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경제 지배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큰 문제를 지닌다.⁷⁰⁾

(다) 자연과 환경파괴의 문제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제력 창출을 위한 또 하나의 물질적 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다.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환경인 자연을 파괴했다. 과학문명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속에 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인간이 사용한 쓰레기에 의하여 더욱 자연환경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환경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⁷¹⁾

(라)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성이다. 정치란 시민 사회의 삶의 가능성을

69) 정일웅,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사회”, 신학지남 제 56권 4집, (1989), 89쪽.

70) 위의 책, 88쪽.

71) 위의 책, 89쪽.

위한 질서확립의 기술이다.⁷²⁾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문제는 통치방식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독재적 획일주의에 의한 통치방식이 지배하여 인권이 유린되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적 보수성과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생산적인 희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각 정당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이념이 하나되지 못하고 철새 정치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치관의 혼돈과 대립으로 불신만 가중시키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둘째, 도시화 현상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쓰이는 말이 도시화이다. 都市化(Urbanization)란 都市的(Urban)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도시적인 생활양식에 젖어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일정한 수의 인구가 한 지역에 집중하여 도시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⁷³⁾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도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 사이의 연계성 단절현상이 생겨났고,⁷⁴⁾ 농촌의 수많은 이농인구가 도시로 몰려오나, 이를 받아들일 수용태세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므로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은 자본으로 잡상인, 행상 또는 노동을 하며 살았지만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인간 소외를 절감하게 된다. 인간이 소외당한 도시화의 현상은 도시문화의 형성에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⁷⁵⁾

72) 채규양, 앞의 책, 41쪽.

73)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기독교문사, 1989), 164쪽.

74) 고영복,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 문제”, 현대사회와 목회설계, (1985. 6), 102쪽.

75) 김남식, 앞의 책, 165쪽.

셋째, 계층구조의 문제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현대사회의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결과한 계층구조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계층구조라는 것은 사회적인 특권과 자원의 불평등을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계층구조의 문제는 계층상승의 기준 문제이다. 즉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엄격히 말해서 이러한 것이 불투명하다.

우리 나라의 계층별 인구는 상층 2.6%, 중층 41.0%, 하층 56.4%로 나오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 지역별 계층화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⁷⁶⁾

우리 나라는 계층구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상층에 대한 심리적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어느 계층이 이를 이끌어왔느냐가 불분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산층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중산층은 잡다한 층이 중산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⁷⁷⁾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바람직한 계층구조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중문화의 오염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부재현상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장 부상되는 것이 대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화를 흔히 대중문화라고 한다.

76) 고용부, 앞의 책, 104쪽.

77) 위의 책, 같은 쪽.

대중문화란 바로 대중을 만들어 내고 또 그들이 즐기는 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양산성을 띠고 있으며 저질품적인 특성과 개성이 배제된, 그래서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물건에서만 그렇게 만들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대중문화의 양산성은 우리의 생활방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문화는 극도의 소비성을 띠고 있다. 시간, 생산적인 에너지, 생활 능력 등을 창조적으로 쓰지 않고 낭비해버리는 양상을 많이 띠고 있다.

소모적인 삶은 생산, 창조의 기쁨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 또한 대중문화는 외래 성향을 띠고 있다. 외래상표, 외래어의 범람, 외래 문화의 선호 경향이 짙게 나타나면서 고유한 문화는 빈곤해 지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또한 향락성을 띠고 있고 저질성을 띠고 있다. 오락과 즐길 김의 향락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물론 대중문화 자체의 원래의 성격이 위와 같은 아니다. 급격히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나라의 오염된 대중문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 한국사회는 이러한 대중문화가 기세를 잡고 우리의 사고와 생활을 침투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⁸⁾

나. 한국기독교 사회의 현재와 윤리의식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교회는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다. 신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고,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

78) 고범서, “기독교사회와 운동”, 강원용과의 대화, (1987), 328쪽.

요롭게 되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사회의 도덕적 몰락에는 무관심했듯이 교회도 오직 수적, 양적 성장을 최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교회 성장이 성령(聖靈)의 역사라고 볼 때 성장 자체를 문제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성장이며 성장의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현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 지상주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기 보다 세속적 가치를 실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성장 지상주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다. 마치 내 가족, 내 집을 생각하듯이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교회나 목회자에겐 관심을 들리지 못했다. 곤궁한 이웃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보다 교회 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버스를 늘리고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을 만들며 교회 묘지까지 마련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길을 걷는다.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자신을 쳐 스스로 단련하는 수행자이기 보다 교회를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경영인, 혹은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한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그의 삶과 실천보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기준이 되었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목회자 자신도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대개는 이것에 굴복하고 만다. 인격적으로 성화(聖化)되고 믿음의 확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인수, 더 많은 헌금, 더 크고 좋은 예배당 등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⁷⁹⁾

오늘의 한국기독교 사회의 현실을 하나하나 그 문제점들과 신자들의 윤리의식을 살펴보자.

그러면 먼저 한국기독교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룩함'의 상실을 지적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장 5절)고 말씀하셨다.

'신 벗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종의 태도를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聖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즉 소명 받은 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종들은 '신을 벗어라', 먼저 성별되어야,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거룩성이라는 입장에서 오늘의 교회를 보면 참 문제가 많다. 목회자는 너무 바빠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여 영적 거룩성의 유지에 소홀해진다. 아예 거룩성을 외면한 채 강단에서 육지거리가 섞여 나오고 목사나 장로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뜻 추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세속 정치를 무색케 하는 권모술수와 고향소리가 큰 사람이 승리한다. 그야말로 성(聖) 노회, 총회가 아닌 성(聲) 노회, 총회이다.⁸⁰⁾

나) 한국기독교 부흥운동의 윤리적 문제를 살펴보자.

기독교윤리란 그리스도의 이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

79) 강영안, "교회가 윤리실천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91. 1), 36쪽.

80)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89. 10), 26쪽.

하려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부흥회와 부흥운동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가 부흥회의 기복주의 혹은 물질주의로의 전락이다.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부흥사의 설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흥회의 헌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걸쳐 물질주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침투해 있는 것이다. '집회인도를 통해 치부하려는 욕심을 가진 부흥사, 부흥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이용하려는 목회자와 개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헌금을 이용하려는 신자들, 이 삼자(三者)의 이해 관계가 결합되는 데서 부흥회는 물질주의로 타락해 가고 있다. 축복을 팔고 사는 부흥회를 통해 기독교적인 옷을 입은 한국적인 악성자본주의가 교회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부흥회의 광고 문제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부흥회를 열면 반드시 벽보나 선전물을 통해 광고하기 마련이다. 그 홍보물을 보면 '불의 사자', '신유의 사자', '권능의 종' 등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집회에서 이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음을 과대선전하고 있다. 또한 부흥사의 집회일정을 교계신문에 실는 것도 문제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불러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니 빠진 날짜에 청할 곳이 있으면 청해달라는 선전광고이다. 셋째로, 성령의 은사를 인위적 방법을 통해 받게 하려고 하는 문제이

다. 찬송을 부를 때 빠른 박자로 박수를 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연습시키며 심지어 방언을 받게 한다며 ‘할렐루야’를 수없이 반복하게 하는 등 불필요하고 잘못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넷째로, 비인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언행의 문제이다. 일부 부흥사들은 강단에서 너무 불합리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마치 희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또 당치도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웃기고 울리려고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설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상당량의 시간을 자기의 이야기로 채우면서 더욱이 자신의 과거(깡패, 탕아시절)의 어두운 편력이 무슨 무용담이나 되듯 과시함으로 그 범죄가 멋져 보이게 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상소리 등의 세속화가 강단을 거칠게 만들고 있다. 때로는 반말과 욕설로 일관하는 부흥사도 있다. 다섯째로, 부흥회의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종교적 이기주의의 문제이다.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잘 살면 그 만이라는 식의 굳어져버린 신앙의 태도이다. 이러한 종교적 이기주의는 오늘 한국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이기주의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채질하는 요인이기도 하다.⁸¹⁾

다)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마다 수적 배가를 이를 만큼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도 병행하며, 더구나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과도 병행하였다. 1960년 이후 한국교회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안, 경제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

81) 황성철, “한국교회 부흥회의 신학적, 윤리적 문제점들”, 목회와 신학, (1998. 6), 75-77쪽들.

게되었다.⁸²⁾ 이러한 성장은 세계교회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의 자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 밖에도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세계 제일은 많이 있다. 1992년 8월 「뉴욕 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한국에 22개의 교회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20대 교회를 소개하는데 아시아의 교회 여섯 교회 중 다섯 교회가 한국에 있다. 국내의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개신교 신자의 수는 14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900만 명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⁸³⁾ 이는 각 교단이 보고한 자료와 통계청의 자료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이중등록교인, 혹은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는 허수일 것이다. 어쨌든 한국교회가 900만 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교회 성장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⁴⁾ 이러한 교회의 대형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대형교회가 가지는 익명성(匿名性)이다. 소형교회가 가지는 신자에 대한 관심도 바라지 않고, 한 교회에 전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도 지기를 싫어한다. 다만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교회를 취사할 수 있는 편의심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의 기능은 가 능하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또한 대형화된 교회의 목사와 신자들이 소형교회의 목사와 신자들을 무시하며 그 위에 균립하려는 신앙적 교만과 우월감이 귀족화 현상을 만들었다.

82)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성서연구사, 1994), 183쪽.

83)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지표”, 1994년에 의한 자료이다.

84)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6), 29-30쪽들.

라) 교단의 정치적 문제

교단마다 총회 때만 되면 한차례씩 몸살을 앓아야 하는 선거 풍토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당의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혼탁한 무법의 타락양상이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의 교단장 선거에도 그 이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상모략에서 금품살포, 호텔을 지정해 놓고 며칠을 두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향응을 제공하고 또 당당하게 금품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를 또 너무나 당연시하며, 지역 감정과 학연, 지연을 따라서 선거하는 것이 오늘의 교계 선거풍토이다. 그렇게 뿌려지는 그 많은 금액의 돈은 과연 어떤 돈인가. 현금으로 들어온 교회의 공금인가 아니면 개인 돈인가. 그것이 현금이든 개인 돈이든 그 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져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에게는 신앙의 양심도 사라졌는가? 그렇다면 세속적인 사회관행과 비교할 때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마) 신학교의 난립과 신학교육의 부재를 살펴보자.

오늘의 한국교회 여러 교파들의 실상을 보면은 수많은 신학교를 서울과 지방에 두고서 신학생을 배출시키고 있고 그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는 길을 터놓고 있다. 이로 인해 신학교 난립과 범람으로 목사의 수준과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또 무슨 독립교회가 많고 거기서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세확장을 위하여 목사 안수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들이 그 교단에서 이탈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큰 교단에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절차가 비교적 쉽고 보충교육에 대한 요구 조건도 크게 힘들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교단도 들어오는 교회에 탐심을 품고 환영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각 교단 목사들의 저하된 신학적 훈련은

비신학적이고 반교리적 내지는 비성경적인 교훈을 발설할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훈련과 지도가 어렵게 되었다.

바) 종교적 혼합주의(混合主義)가 가져오는 문제를 보자.

근래에 '종교다원화'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어느 개인이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종교다원화 사회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불교(37%), 그리스도교(24.3%), 유교(1.0%), 원불교(0.3%), 천도교(0.1%), 기타(0.6%) 등으로 한국의 종교 분포는 다양하며, 전국민의 5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46.8%)보다 여자(60.5%)가, 농어촌(46.7%)보다 도시(65.5%)에 종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에게 종교다원화는 한국인의 혼합된 세계관에서 연유한다. 한국인의 종교적 바탕 또는 정신적 바탕은 근본적으로 무당종교에 의거해 있다.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 중심은 무속적 요소가 있고 불교나 유교나 그리스도교 할 것 없이 한국에서는 무당종교가 그 바탕의 저변에 깔려있다.⁸⁵⁾

최근의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15.2%가 '점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19%는 통계의 과학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인생 예언철학이라고 답한 사람도 1.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신자들이 통계적 마술, 영적 미혹이라는 점술의 본질적 속성에 깊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점술을 보

85)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21-22쪽들.

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2%가 '가끔 보았다'고 답하여 전혀 보지 않았다는 8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나 점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점술을 보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어떤 문제로 보았느냐'는 질문에 운명(25.9%), 취직 및 사업(4.7%), 부부 문제(4.3%), 궁합(3.1%), 기타(5.1%) 등으로 전체의 44%가 흔히 일반인들과 같은 문제를 점술에 의존하고 있는 혼합적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반영하였다.⁸⁶⁾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였지만 교회를 성숙하고 질적인 교회와 신자로 만드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되었다.

사) 祈福的인 신앙의 문제를 살펴보자.

기복성(祈福性)은 무당종교의 특징으로서 한국교회에 깊이 잔재하고 있는 요소라고 비판을 받는다. 무당종교의 종교행위는 대부분이 재앙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런 일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종교행위를 통해 인간의 이러한 욕구를 종교적으로 해소한다.

이러한 무당종교의 영향이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현실적 이익추구의 공리적 신앙과 기복사상을 갖게 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들과 하나님의 언약(言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선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언약이 복으로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기원하는 한국교회가 기복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무당종교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당종교적 방법론 때문에 기복적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

86) 빛과 소금, (두란노서원, 1995. 11), 70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은 제사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의 선택으로 무당종교처럼 인간의 요청으로 복을 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편의 의미를 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다. 즉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⁸⁷⁾

목회자가 심방을 할 때에 미리 봉투에 든 헌금을 목회자 앞에 놓으며 이러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또한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달라고 드리는 헌금이 바른 헌금인가를 비판하는 것이다. 문제는 헌금이나 복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방법론이나 복에 대한 이해가 문제시되어 기복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편승해서 일부 신학과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은 목회자, 부흥사, 은사주의자들이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헌금(복채)을 받고 기도해 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비판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기독교 신자들의 윤리의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근거는 한국기독교를 초월해서 개신교의 전통에서 파생된 문제에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앙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어왔고 개신교 전통에서는 윤리보다 신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안고있

87) 이성희, 앞의 책, 57쪽.

는 윤리의식 결여문제의 뿌리는 어느 정도 개신교의 전통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윤리를 뒷전에 두고 신앙만을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칼빈 자신의 본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것 같다. 그 동안 한국 기독교는 칼빈에 대해서 해석할 때 지나치게 윤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왔으나 칼빈의 윤리사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윤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았었다. 물론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신앙은 윤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수준에 맞추어 노력해야 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이러한 믿음은 지속적인 윤리적 생활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윤리적 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도 계속 윤리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인 것이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윤리의식은 예언자의 전통에 기준을 두고 사회 질서, 규범, 가치 등에 대한 비판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윤리의식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여 세계에서 유래 없는 교회성장의 모델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에 따른 질적인 성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윤리를 떠나서 그들이 강조하는 순수한 신앙에만 열중해 왔기 때문이다.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는 동기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이 개인주의와 기복사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무속종교나 불교를 신봉하거나 기타 종교생활을 하다가 좌절감에서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으면 병원을 바꾸듯이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는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속 사람은 아직도 윤리의식이 결여된 토속 종교인일 것이다.

1986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한완상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불교인과 무종교인 보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으로 약간 더 질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⁸⁸⁾ 한완상 교수의 조심스런 낙관주의는 상대평가에 의한 것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는 응답자들의 태도와 가치일 뿐 구체적 실천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불교와 무종교에 비교하지 말고 평가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윤리의식을 두고 같은 자료를 평가한다면 너무나 미흡하며, 윤리의식이 약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별로 윤리의식이 없이 현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강단에서의 설교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해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 소망이나 혹은 이 땅위에서의 축복과 외면적인 성공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런 설교가 고통의 상처에 신음하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아편이라는 역기능을 나

88) 한완상, “한국교회는 과연 누룩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 사상사, (1987. 3), 35-45쪽들.

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윤리의식이 결여된 설교들이 주일마다 한국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 평신도들로 하여금 가난과 질병과 억압으로 비인간화되어진 사람들로 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들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부채질하며 한국교회의 귀족화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계층에 전파되어졌다. 당시의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꺾박과 환난 중에서도 한국민족의 삶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후 1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대도시 교회는 비대할 정도로 확장되어졌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서구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유지와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야 하겠다는 의욕과 정열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무기력과 안일에 빠져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성공과 구원하는 일 외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반지성적이고, 시대에 어긋난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⁸⁹⁾ 또, 하나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원인을 찾는다면 동양종교와 토속종교의 영향을 들 수가 있다. 세상을 소극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불교적 사고방식은 인간 본능에 대한 금욕 및 회피의 자세를 가르쳤다. 더욱이 유교의 생활철학은 육체적인 것은 지양하고 고도의 정신적 가치만을 숭앙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침내 경직된 형식주의나 체면 위주의 행동양식을 낳았다. 민간의 토속신앙은 귀신, 무당, 요행, 맹목적인

89) 박원기, 「한국기독교와 윤리의식」 152-153쪽들.

열심, 꿈, 고통의 예측 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특히 우리의 종교심에 영향을 끼쳐왔다.

기독교인들의 의식구조에는 불교, 유교, 무속종교가 집합적인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윤리가 결여된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나타났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비도덕적인 현실로부터 탈피하는데서 오는 윤리의식의 결여도 있다. 100여년의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의 탄압과 해방이후 6.25의 고난과 그후 군부 독재치하에서의 탄압 등을 통해 피와 눈물로 얼룩지었기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현실 넘어 피안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신앙과 생활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의 현황에서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비전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이원론적 사상이 도입되었다. 이 문제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도덕적인 사회,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인간관계,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패턴을 정하게 되었다.

다. 칼빈 윤리사상의 한국기독교 사회에의 적용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도시화 현상으로 생겨진 부수적인 부정적인 일들로서 유흥가의 난립과 퇴폐적인 사회 현상이 생겨났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물질만능 사상의 팽배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극심하여 삶을 즐기기 위한 소위 한탕주의가 만연해 지고 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신자의 신앙 생활과 정신이 흐릿해지는 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점차 인본주의로 또 현실주의로 신자들 역시 물질만능 사상에 오염되고 있다. 곧 세속화 현상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수적으로는 교회도 목사도 신자도 많아졌으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면에는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속적인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세상의 빛인데 꺼진 등이요, 또 소금이 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할 교회와 신자들이 개혁의 거치는 돌이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교회와 신자들은 철저한 칼빈의 윤리사상 즉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 생활과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날마다 자신을 부정함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칼빈의 윤리사상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한국기독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시급히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윤리의식 회복에 대한 제안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험도 중요하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일 것

이다.

1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근대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슈라이어 막허가 기독교 신학에 획기적인 변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성경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 감정에다 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정서에 표준을 두려고 하였다.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서에 신앙의 표준을 두려고 하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신앙의 표준을 찾으려하고 있다.⁹⁰⁾

그 결과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기복주의적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는가 하면, 교회행정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사위주의 목회를 함으로써 성경을 통한 신자들의 인격적, 도덕적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독교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더욱더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비난의 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칼빈은 성경을 신앙의 행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에 그 표준을 두지 않는다. 오직 성경 자체에서 그 권위를 찾는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내 지성을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키지 않는 자는 참된 기독교인이

90)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한국문서 선교회, 1990), 37쪽.

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흠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성경보다 더 앞서지 못하고 예속되어야 한다.

칼빈은 말하기를 “어떤 신탁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약되어 인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육감을 결여하고 있지 않는 한 말씀하신 자를 불신할 만큼 뻔뻔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나 말씀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영구히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수단으로 성경책만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하늘로부터 발성(發聲)된 것임을 확신하는 데서만 그 권위가 생길 수 있다.”⁹¹⁾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⁹²⁾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⁹³⁾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성경암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경건 시간을 가지므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신앙생활의 안내서로, 생활의 규범으로, 표준으로 삼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경의 권위를 증거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제일주권 사상을 통한 윤리의식 회복에 대한 제안이다.

91) Inst., I. 7. 1.

92) Comm, 시편 119:9.

93) Comm, 시편 119:11.

오늘의 한국 기독교 사회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보다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세와 행복의 도구로 전락되었기에 처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자신의 출세와 행복의 목적이 달성되면 신의식(Coram Deo)을 갖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며 세속적인 생활에 자신을 던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방종한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명예와 권세, 물질, 쾌락,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고(思考)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칼빈의 생활지침은 즉, 윤리의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권 사상에 있다. 칼빈은 생활의 모든 현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의 손길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체험하며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는 인간에 의해서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전세계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신앙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운동력이다. 그 힘으로써 인간은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⁹⁴⁾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중심의 신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칼빈의 좌우명이었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고 하는

94) Comm, 고린도전서 10:31.

신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독려한다.⁹⁵⁾

이제 한국 기독교 사회의 모든 신자들은 칼빈의 하나님 제일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일 하루만의 신자가 아닌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⁹⁶⁾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장로교 소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⁹⁷⁾ 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해야 한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을 제일로 삼으라고 한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⁸⁾

95) 이규현,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독교적 정당성 고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17쪽.

96) Comm, 마태복음 5:48.

97) 문영탁, 『소요리 문답』 (서울:크리스찬 서적, 1992), 13쪽.

소요리 문답은 교과서로서 영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전성기에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1642-1649)에서 경건한 목사 120명, 장로 30명이 모여 기도와 연구를 거쳐 성경말씀을 따라 만든 것이다. 대요리 문답은 교역자를 위해 196개의 문항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항과 답변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단시간에 쉽게 이해하고 배우도록 만들어졌으며, 신앙고백과 교리론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듯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예배와 생활은 연속된 하나의 생활이라는 의식을 새롭게 할 때에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될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 것이다.

셋째는 자아부정을 통한 윤리의식 회복에 대한 제안이다.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리라고 명령할 때에 성경은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을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영예에 대한 야심과 갈망 그리고 그 밖의 더 깊이 숨어있는 해독을 송두리째 뽑아 버린다. 그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자아부정이 마음을 점령하면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 그 밖의 이기심을 빚어내는 죄악들은 허용되지 않는다.⁹⁹⁾

반면에 자아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횡행하거나 보기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해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 진다.¹⁰⁰⁾ 그리고 자아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와 비교해서 남을 모두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아부정은

98) Wilhelm Niesel,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141쪽.

99) 이려상, “칼빈의 인간이해”,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1991), 64쪽.

100) Inst., III. 7. 2.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¹⁰¹⁾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브룬너는 ‘자아부정을 통한 성화는 자기를 공동사회에 내어주는 일이고, 그것은 나 보다 당신께 행하는 타자지향인 것이다. 거기에서 자기는 다시 강하게 긍정된다는 역리가 있다.’고 말한다.¹⁰²⁾

기독교 윤리의 주체는 결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한 기독교적 생(生)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역사 하시도록 장소를 그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 분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지배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전심으로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은 자아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새겨 주었다.¹⁰³⁾

101) Inst., III. 7. 5.

102) 이려상, 앞의 책, 64쪽.

103) Wilhelm Niesel, 앞의 책, 같은 쪽.

V. 결론

현대는 도덕적으로 깊이 병든 시대이다. 18세기 루소의 낭만주의 이래 우리는 개인윤리이던지 전체 사회개혁이던지 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인간의 현세적인 요구가 대체로 윤리적 행동의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 흐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서 인간의 현세적 행복이라는 중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중병 속에서 우리 사회와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표준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윤리생활의 모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은 가정의 붕괴와 신앙 양심의 독이 무너지고 정직, 신용, 성실,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파는 교파대로 교세와 교파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데는 열심이지만 윤리와 도덕 교육을 통한 신자들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한국 기독교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고 본다.

칼빈의 기독교 윤리사상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안내서이며, 모든 생활의 규범이요 표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계끔 성경을 주셨다.

또한, 인간의 윤리생활은 전적으로 삼위일체(三位一體)하나님께 의

존하여 그의 위엄과 지혜,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조건 받아들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겠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本性)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전적으로 부패하여 인간은 선(善)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내 디딜 수가 없으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따라서 타락한 인류 중에 얼마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이들의 윤리적 영적 생활의 근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앙은 죄와 노예로부터 자유와 죄인에게 부과되었던 저주와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왔다.

칼빈의 윤리는 자신을 부인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든 행동을 자아부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기독교 사회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신앙(信仰)과 물질만능사상(物質萬能思想)에 오염된 세속주의(世俗主義)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Coram Deo)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경의 권위에 겸손하게 부패한 자아를 포기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다시 찾고, 가리워서 비추지 못했던 빛을 다시 밝히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며, 사랑을 실천하여 무너져 가는 기독교 사회에 도덕과 윤리의식을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예배와 집회위주의 모임에서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경공부를 통한 개인 경건 생활과 자기 교회만의 대형화를 위하여 사람을 끌어 모으는 외적인 성장위주의 목회철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에 나누어주는 실천적인 목회철학으로 교회가 사랑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앙 생활로 자신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기독교 사회는 칼빈 기독교 윤리사상을 기독교 사회에 적용하여 한국 기독교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료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바른 교회와 바른 신자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서적」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8.
- 김태길, 「직업윤리와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 정일웅, 「하나님 나라와 한국사회」, 신학지남 제56권 4집, 1989.
-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93.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문영탁, 「소요리 문답」,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2.

「번역서적」

- Andre. Bieler, 홍치모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William J. Bouwsma, 이양윤. 박종숙공역, 「칼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 J. Calvin,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도널드 S. 월레스, 나용화역,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아더 핑크, 소문강역, 「인간의 전적타락」, 서울: 청교도 신앙사, 1989.

E. M. 바운즈, 말씀사역, 「사탄의 정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그레삼 메이천, 채경희역, 「기독교 인간관」,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1988

W. Fred Graham, 김영배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W. Fred Graham, 신복윤역, 「칼빈의 빈부관」, 신학정론, 수원: 합동신학원, 1985년 8월.

J. Calvin,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칼빈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Wilhelm Niesel,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논문 및 정기간행물. 사전』

채규양,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정착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1.

이려상, 「칼빈의 인간이해」,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1991.

고영복,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 문제」, 현대사회와 목회설계, 1985년 6월

고범서, 「기독교 사회운동」, 강원용과의 대화, 1987.

신복윤, 「칼빈의 윤리사상」, 신학정론, 수원: 합동신학원, 1984년 4월.

정성구, 「칼빈의 문화」, 신학지남, 1978년 7월.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편찬위, 「신학정론」, 서울: 도서출판 바라, 1990.

한완상, 「한국교회는 과연 누룩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사상, 1987년 3월.

박원기, 「한국기독교와 윤리의식」.

강영안, 「교회가 윤리실천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91년 1월.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80년 10월.

황성철, 「한국교회 부흥회의 신학적.윤리적 문제점들」, 목회와 신학
1998년 6월.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83.

빛과 소금, 두란노서원, 1995년 10월.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Calvin's Ethical thought to Korean Churches

PARK MYUNG CHU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Ethics of the nation

Inchon University

Nowadays korea christianity society of height economic growth follow matter almighty a doctrine thought from matter of subject and thoughtless cultural of a flood among the worldly worth and church of a large size along the amount of materials a doctrine and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already acquired rights protect and a religious party for an individual profit, society complications the present situation as for church and a believer of a group collective egoism go through. At the same time non the Bible of mystery experience and mourning thought and a conclusion from faith in conscience and christianity believer ethics about strong suspicion bring, christianity(church) for society distrust and inhospitality do deep. So Nowadays of korea christianity society and believer morality and confidence restoration, and society pathological may search for medical treatment light and salt of a mission being

responsibility right church, right believer doing Calvin of christianity ethics thought through the a pan.

1. Christianity ethics thought of Calvin theoretical the basis Calvin humanistic a principle influence through he human principle knowledge depart from God the center remove apply learning. also he human understand for two side the first God of being shape for basic shape and God talk depart from distrust from God shape look for after lose degradation. and Calvin of civilization thinking is creation and connection God of sovereign power thought. Namely God want creation of world human of degradation on doing putrefaction distort from Jesus Christ through human world of restriction and the culture transfer from proving glory. As God of creation of world and culture for all province is God of all sovereignty indicating an open space.

The other side, As Calvin did take part deep society innovation.

General relief problem through a deacon and presbyter among believer drawing city as three boundary of ethics, morality problem control the police role, luxury prohibition two for poverty exterminate, poverty difference making food, clothes about resection and card, diceplay forbid. He also a large sum of money, wages problem and labour the number of days, control, family a system incline about deep.

2. Calvin of christianity ethics thought is basic theological this God of will and his talk record the Bible of absolute authority about a conviction. He, Bible lead believer of faith life, all life of a rule is, As being a standard, God our leader and teacher of a part gives bible.

Also human of ethics life answer the Trinity consubstantiation God dependence on his dignity, wisdom, goodness and omnipotence unconditional receiving human God of a regulation and trust in

providence before how my life bidding do. And human of the original nature don't receive for rotting human goodness don't goer one a footprint, oneself relief don't receive. Only a previous arrangement of God along rotting human among have done how selection relief, Their ethics the basis of a soul life can do faith. This faith from a slave of sin bring over free a criminal impose a curse and heavy sin burden.

Ethics of Calvin find out myself denial give up myself about concern and myself thought and hope all goodness find out in Jesus Christ, Self-sacrifice for God of glory and all doing for God of gladness understand self in justice.

3. Nowaday our korea christianity society flowed gradually humanism also this worldism believer also matter almighty thought pollute popular customs. Clear church and believer of number increase but society of influence rather weaken popular customs didn't cope with a wave. A lamp was put out, salt lose taste. So society of change and innovation disturb stone

Then to be an object, our christian is imminently a subject through Calvin of ethics idea in ethics education and moral recovery.

Because human doesn't have absolutely rotten and goodness can do ability, human one's own rotten and incompetence and recognize effeminate and God come before modesty after his the language must do to obey without objection.

Because Calvin of ethics occur the origin in Bible, The Bible faith life of absolutely authority as christianity believers of life reader as all life of regulations and standard must become.

A moment ago one's own rotten who our christianity believer throw away and God front God of ceremony having word teach, deliver goods according to lose salt of taste again seeing and becoming dark, give forth light again and in dark don't know going way and

wandering, As the midway hopelessness living society among giving faith, giving hope, practice love, Being destroyed morality and ethics consciousness would do again to very rise from a lowly position.